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36호 / 2026년 09월 03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정몽원 회장, 보고만 받았겠나

- 이해할 수 없는 기업 운영 체계,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누구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는 이런 모습이다. 보통 ‘대표이사’ 라고 하면 사장을 생각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자를 떠올린다. 회장 → 대표이사(CEO) → C-레벨 임원 → 각 사업본부

그런데, 중대재해 이후 조성현 대표이사가 HL만도 최고경영자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사저널e 8월 26일자 기사에서, ‘HJN 부채중 Daily 주요 업무 보고 지침’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 (중략) “HJN께서 반드시 인지 or 의사결정 하실 내용” 을 매일 보고하도록 적혀 있다. 대외 고객 관련 사항을 비롯해 대관·언론·법률·품질 이슈와 대내 중요 현안 등이 보고 대상의 예시로 제시됐다. (중략) ~

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표이사는 단지 회사를 대표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대표이사 아래에 각각의 C-레벨이 있지만, 대표이사를 포함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상하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정몽원 회장, 보고만 받았는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부 문건’ 에는 반드시 ‘H J N께서 반드시 인지 or 의사결정 하실 내용을 매일 보고’ 라고 했다. 결국, 각각의 C-레벨들은 모든 중요 현안을 비서실을 통해 보고하고, 최종 결정은 정몽원 회장이 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뒷받침된 것이다.

그럼 질문이 생긴다. 지난 14년 동안 신규채용 중단, 외주화, 임금과 복지 축소, 안전조치 방치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그렇게 비용 절감해서 과연 어디에 사용한 것일까? 2014년 지주회사를 설립해 만도의 자산을 HL홀딩스로 가져갔고, 만도는 부채만 떠안았다. 그 이후 클레무브 물적분할을 통해 만도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 모든 결정 뒤에는 정몽원 회장이 있었다.

9/1일,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

- 14년 관성을 끊는 만도지부의 첫 임단협 교섭 진행 중

현재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측은 매번 준비한 안이 없다고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측의 행태지만 올해는 유난히 완강하다. 뭐랄까, 아직 사측이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할까? 그러나 노동조합은 교섭에서 사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있다. 교섭은 교섭이니까

지난 9/1일,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와 최종 합의했다.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은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관련 법률 개정시 정년연장을 시행한다는 합의를 했다.**

한편, 만도지부는 오늘 9차 임금교섭과 실무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단체교섭은 단협 승계 문제가 있어 조항별 실무교섭을 통해 우선 점검하고 있다. 쟁점은 이후 본 교섭에 다룰 예정이다.

■ 노사저널, 평균연봉에 잔업 특근 포함

노사저널을 읽고 난 대다수 조합원과 사무직 동지들은 공감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거리가 줄어 1,2조 근무에서 1조 근무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측은 공감 능력도 없는 것인가? 우선, 사측은 일시금과 성과급을 제외한 1억370만원이 평균연봉이라고 했다.

2025년 1월 기준 기초현황이다. △ 평균근속 28.8년 △월평균 급여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모두 포함해 약 679만원이다. 대략 8,150만원이다.

회사가 제시한 평균연봉과 기초현황의 차액은 2,220만원 이상이다. **월급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업 특근으로 부족 임금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과 같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회사는 월급제 취지를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임금저하 없는 급여라고 했다. 월급제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도 잔업, 특근, 야간으로 부족 임금을 메워야 하나?

단순 계산으로 월 180만원 차액이 발생한다. 잔업 특근으로 월 180만원을 메우려면 특근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 그럼 1년에 특근 하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